

頌 壽 詞

근년에 들어 사람의 건강상태가 일반적으로 좋아지고 平均壽命이 延長되어 참된 人生은 60부터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지만, 사람이 還甲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意義가 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韓國環境法學會장이신 桑垣 金伊烈博士께서 금년에 것처럼 뜻 깊은 華甲을 맞게 되셨으니, 金博士와 그 家族의 慶事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거니와, 이는 또한 우리 韓國環境法學會의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會員 여러분과 함께 金會長님의 回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것이다.

金博士와 交分을 가지게 된 것이 5·16 직후의 일이니, 벌써 4分世紀의 세월이 흘러간 셈이다. 混亂이 반복되던 시기에 우리는 行政法學에의 길을 함께 하는 길손이 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면한 環境問題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는 사이가 되었으니, 實로 朋友責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겠다.

金교수께서는 中央大學校 교수로서 또 同大學校의 法科大學長·總務處長·圖書館長을 歷任하시면서 後學의 教育은 물론 大學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心血을 기울이시는 한편, 行政法學의 연구에 精進하여 오신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다. 특히, 金교수께서는 일찍부터 民主行政의 확보라는 見地에서 行政節次와 地方自治에 관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므로써 그 분야의 獨步의 位置에 계시는 것도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에 더하여, 金會長께서는 現代產業社會가 직면하고 있는 環境問題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環境法의 研究·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는 바,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同學會의 常任理事 또는 副會長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會長으로서 學會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殊선하여 기여하고 계심은 우리 會員 모두가 크게 감사할 일이라고 하겠다.

6 頌壽詞

回甲은 새로운 干支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니, 곧 풍족한 과거위에 더욱 알찬 새로운 人生을 시작하는 第2의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華甲을 맞으시는 桑垣 金會長께서 年富力強하시고 學德이 길이 빛나기를 祈願할 뿐이다.

1989년 4월

李 尙 圭